

1 오늘날의 아이누 민족

現在を知る

The Ainu in Contemporary Society

爱努民族の现在

愛努民族的現在

오늘날의 아이누 민족

Айны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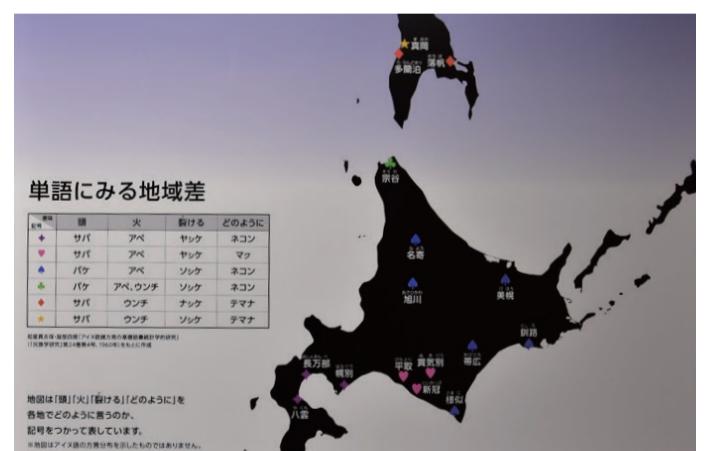
現在のアイヌ民族の人口は数万人ともそれ以上ともいわれています。多くは北海道に住んでいますが、就職や進学、結婚などをきっかけに、東京や大阪など各地にくらしの場を移した人たちもたくさんいます。北海道でも、ごぞんじ市をふくむ各地にくらしています。現代では、アイヌの人たちだけが住む村のようなもの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現在のアイヌ民族は白人のほかの人びとと同じ地域のなかで、ともにくらしているのです。

While the current Ainu population is not precisely known, it is thought to number in the tens of thousands. Most reside in Hokkaido, but much of the Ainu population has migrated to Tokyo, Osaka, and other regions throughout Japan in pursuit of careers, education, or marriage. In Hokkaido, there are many towns where Ainu people are the majority, including Sapporo Cit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are communities populated entirely by Ainu people. In contemporary society, the Ainu live side-by-side with the other residents of Japan.



아이누 문화의 지역 차이

아이누 문화를 말할 때 "다문화주의" "다문화 공생"이라는 사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아이누 문화는 "다문화" 속의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누 문화에도 지역이나 개인에 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아이누어도 사할린과 홋카이도는 단어나 문법, 구승 문예의 명칭이 다릅니다. 쿠릴 열도 언어도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의 지역 차이

이 지도는 아이누어의 단어, 구승 문예와 노래, 춤의 주된 장르와 그 명칭, 전통적인 의복 등을 사례로 홋카이도와 사할린 등의 지역마다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 사례로서 자장가를 뭐라고 하는지 몇 군데 지역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비히로나 아사히카와 시라오이 등에서는 "이훈케"입니다. 무카와초와 히다카초 몬베쓰에서는 "이온루이카"입니다. 무카와와 몬베쓰의 중간에 있는 비라토리초에서는 "이온놋카"라고 합니다. 사할린 등에서는 "이윤케", "윤케"라고도 합니다.

아침의 삿포로역

이 사진은 2014년의 아침의 삿포로역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생활하는 아이누 사람들도 매일 이렇게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시장 등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아이누를 잘 모르는 사람 중에는 아이누 민족이 지금도 특별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아이누 민족은 아이누 민족이 아닌 다른 일본 사람들과 똑같은 지역에서 함께 똑같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 박물관을 찾아주신 여러분께서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오늘날의 아이누 민족

현재 아이누 민족의 인구는 수만인 또는 그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은 홋카이도에 살고 있으며 삿포로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진학이나 취직, 결혼 등을 계기로 도쿄나 오사카 등 홋카이도 외의 지역으로 살의 터전을 옮기고 각각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아이누 민족의 의, 식, 주나 직업 등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은 일본에 사는 대다수 사람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의식도 가지각색입니다. 아이누 문화를 미래에 이르기까지 소중하게 전해가고자 적극적으로 아이누 문화의 계승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평소에는 아이누 문화에 대해서 거의 의식하지 않으나 자신들의 역사나 문화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가족의 이야기

여기서는 어느 아이누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의 초등학생인 "나"가 조부모로부터 자신의 가족에 대한 역사를 듣는다는 전시입니다. 메이지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각 시대를 살아온 아이누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느끼기 위한 시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느 아아누 가족은 전시를 위한 가공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5세대 전의 부부는 에도시대 말경에 태어나 전통적인 생활 속에서 성장하여 목각이나 자수의 기술을 익힙니다. 어렸을 적에 어장에서 와진(혼슈인, 本州人)에게 고용되어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쯤에는 시대는 메이지로 바뀝니다. 일상생활이 크게 변해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농업에 힘을 기울이고 아이에게 일본어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등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노력과 궁리를 합니다. 이 부부와 부부의 친구들, 지인들, 아이들은 농업이나 어업, 수렵(사냥) 등에 종사하는 사람, 측량 기사로서 도로와 철도의 건설 등의 일을 하는 사람, 말의 육성에 능력이 뛰어나 경마계에 진출한 사람 등,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각각의 직업과 교육, 삶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는 조부모에게서 듣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사상을 알게 됩니다.